

카나다 한일은행

HANIL BANK CANADA

밴쿠버 지점

Suite 2604, Four Bental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B.C.
P.O.Box 49283 (604)681-2266

Toronto Main Branch

Suite 1103, 60 Bloor St.W. Toronto,
Ont. M4W 3B8 (416)975-0456밴쿠버
코리안 프레스

The Vancouver Korean Press

朝鮮日報 기사특약

캐나다 한국외화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밴쿠버 지점 (604)684-6391

One Bentall Centre, #430

505 Burrard St., Vancouver, V7X 1M3

본점 (416)932-1234

날투어지점 (416)533-8593

노스욕지점 (416)364-0002

몬트리얼지점 (514)438-6655

미시사카지점 (416)272-3130

제299호 1992년 7월 24일(금) #207-2043 Quebec St. Vancouver, B.C. V5T 2Z6 877-1178 Fax. 877-1128 Published Every Friday By D.Kimn 발행인 김동기

(16) 1992년 7월 24일, 금

Vancouver Korean

經濟人 手帖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땀과 피와 눈물(?)

김영수 (경제학박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필자가 “부자되는 법”이라고 말했던 것은, “부모 잘타고나기, 독점차지하기, 리스크테이킹하기, 현금력동원하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흔한 부자되는 방법으로 드는 것이 ‘근검절약’이다. 지금까지의 부자되는 방법은 ‘환경으로 부터주어진 것’이라는 면이 많지만, 이 ‘근검절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자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근검절약을 통하여 부자가 되는 과정을 이 장에서 잠깐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근검절약’에 대해서 論議를 좀 할려니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의 목과 어깨에 힘이 아주 심하게 들어간다. 아마, 이 “근검절약”이라는 행위 패턴은 전세계 거의 모든 종교나 윤리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離目으로 간주하고 있는 항목이라서, 이 근검절약에 대해서 필자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여러 종교나 윤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權威가 저절로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긴, 근검절약이 중요하다는데

절약으로 富를 쌓는 몇 가지 과정과 원칙, 그리고 조심하여야 할 몇 가지 함정에 대해서 약간은 속스럽고 약간은 개연적으로 논해보기로 하자.

하여간, ‘근검절약’이라는 말은 요사이 와서는 별로 잘 쓰지를 않는다. 1960년대에, 케인즈 경제학이 유행하면서,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말이 유행한 뒤로, 이 ‘근검절약’이라는 말이 쓰 들어가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그렇다. 요사이에는 ‘소비는 미덕’인 시대이다. 즉, ‘미친듯이 쓰는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히게 요상한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Mass-Consumption이라고 한다. 그냥 ‘쓴다’는 의미의 ‘Consumption’이 아니라, ‘왕창’이라는 의미의 접두어 ‘Mass’가 붙어서 말이다. 즉, 왕창 쓰는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 듯이 쓰고 나서는 금방 ‘돈이 없다’고 야단을 해댄다. 혼자서도 쓰고 모여서도 쓴다. 온식구가一致團結하여,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쓰는 것을 감당할려니 엄청나게 벌어야하고 또 엄청난 돈을 쉽게 벌려니, 나쁜 짓, 무리한 짓, 요상한 짓을 자연

히 하게되고, 그러다 보니 敗家亡身은 물론이고 集團自殺現場即死 현상까지 일어나기 마련이다. 참, 한심하기 짹이 없는 시대이다. 예전에는 버스 만 제 시간에 와도 아이구 다행이다. 싶다가, 조금 있으면, 앉아가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택시를 꽉 타야되고, 조금 있으면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하여 살 수가 없게되고, 이제는 그것도 식구마다 한대씩 서너대가 있어야되고, 그것도 조금 있으면, ‘체면때문에’ 캐딜락이나, 메르세데스벤츠니 무어니하는 차가 있어야된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예전에는 캐딜락이라는 것은 고종황제나 타시던 것인데... 집도 그렇다. 연탄가스중독될 겨를도 없이 연탄불 같아끼우던, 문간셋 방살이 걸방하숙살이 하던 것 이 바로 엊그제인데, 이제는 화장실 달린 침실이 4-5개는 되어야하고, 거기다가, 동네도 국제적인 부호들만 모여사는 곳에 꼭 살아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구치인지 장이치인지 물거품 부글부글나오는衛生에도 좋지 않은 요상한 목욕통이 없으면, 도무지 불편하여 살 수가 없게 된다.

사람이란 것이 원래 그렇다. 거기다가, 텔레비전이고 영화고 주위에 보고 듣는 것이라고는 모두 돈을 쓰는 것을 부추긴다. 극단적인 경우, 금요일 저녁인가 언젠가에는 “Life Style of Rich and Famous”라고 하여, 일년에 수백만불 썩 파티나 여행에 돈을 퍼쓰는 사람들의 생활을 소개한다. 그 프로그램 속에는 이 혼도 서너번씩 하는 놈이 제일

잘 난놀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왕창 벌어서, 위자료 왕창 주어서 糟糠之妻 차 버리고, 돈 왕창들여서 요상하게 생긴 색씨 얻어서, 돈 왕창 들여가면서, 매일 파티하고, 또, 마누라 같아치우고’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는 이러한 헤도니스트릭한 생활 양태에 대한 죄책감이라고는 일점도 없고, 그렇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바보같고 초라한 놈들인지를 注入시키고 있다. “사십시오, 사세요, 사라, 사, 뭐? 돈이 없다고? 빌려줄께...” 이것이 현대 TV문명이 전달하고 있는 근본 메시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하면, 돈의 순환이 빨라져서, 경제가 잘돌아가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 더 쓸 수 있고, 그러면 더 부자가 되고. 이것이 소위 케인즈 경제학이 말하는 需要의 良循環인 것이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간사하기 짹이 없고, 욕심이 한이 없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주여!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의 힘난한 십자가를 지게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것전을 쟁탈 쟁탈 시끄럽게 한다. 그래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라면서 염세주의니 허무주의니 별별 업을 다 떨다가, 어느 날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웃기지도 않는 ‘체면’ 때문에 ‘벤즈’니 ‘자구치’니 별 희한 짓을 다하게 된다. 필자만 하더라도, 년전에는 ‘이번 학기 등록금이 꼭 마련되기를 원합니다’라면서, 금식기도까지 하던 적이 있었는데, 요사는 지나가는 벤즈를 보면,

<아랫면에 계속>

‘거 좋아보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슬슬 테스트해보는 것이 아닌가? 참, 한심하기 짹이 없는 노릇이다. 나도 정신차려야지...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소비 수준을 줄이면, 참 후련하여 질 때가 왕왕있다. 태국의 짐통 방콕 시장이나, 인도의 간디같이 극단적이고도 전면적인 所有 否定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소비의 수준을 단숨에 ‘꽉’ 줄여 버리면, 거기서 오는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여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VCR이 두서너대씩 없어도, 32인치 텔레비전이 없어도, 레이저디스크 카라오케가 없어도, 보론 그라파이트 골프채가 없어도 사람은 무지하게 행복하게 자낼 수 있다. 필자만 하더라도,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덜 깨어서 그런지,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을 모두 장만하였다. 그것들을 사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마치 인생의 중요한 여러 문제가 해결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은 바로 그것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느껴졌다. 예를 들어 골프채만 하여도 그렇다. 그 보론 골프채만 사면, 필자의 골프 스코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달로그를 있는데도 모아, 마켓 스터디를 한답시고 몇 주인가를 들여다 보다가, 그 다음에는 온 동네 골프샵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의 골프채를 조무락 조무락 거렸다. 그리고는 무언가 구실을 찾았다. 생일, 결혼기념일, 삼일절, 한

글날, 삼당합당기념일,... 그리고 아내의 기분을 잘 살펴가며, ‘반찬이 정말 맛있다’느니, ‘구구 집 색시는 남편 무엇을 사준 뒤로 남편에게 그렇게 대우를 잘 받는다’느니... 말도 안되는 어리광 겸 아부를 며칠 늘어놓으면, 아내는 필자의 유치한 嫉數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그짓기 골프채 때문에 이런 작태까지 벌리는 남편이란 작자가 불쌍해져서, ‘여보 남자가 그까짓걸 가지고 그러셔요? 가서 사세요. 사.’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골프채를 샀다고 스코어가 줄었는가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그 골프채 사고 난뒤로는 잘 맞는 정도가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도저히 골프를 계속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그 골프채 사고 나서는 골프를 아예 치지를 않는다.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써,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여, 좋아하던 취미는 취미대로 잃어... 필자는 그 골프채에 관한 한 아주 폭삭 망했다. 생각해 보면, 만사가 다 그렇다. 집이 그렇고, 자동차가 그렇고, 사업체가 그렇다. 정말, 우리는 필요없는데 돈을 너무 쓴다. 돈을 모을려면, 돈이 우선 나가지를 않아야된다. 필자도 이 점에서 과거의 幼稚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금융계에서 도사님으로 존경받고 계신 분들을 보면, 꼭, 이 근검절약이 확실하다. 수천만불씩 하루에 굽리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그들의 생활방식이 단출하고 검소한데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한번 썼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정말 환율이 움찔 움직일 정도로 돈을 쓴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평소 생활태도는 근검절약이라는 말의 솔선 수범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셔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일례로 뉴욕의 증권가 월스트리트에서 아무리 불경기가 되어도 절대로 해고를 하지 않는 유명한 증권회사가 하나 있다. 그 회사의 경영주는 유태인 인데 직원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여기 저기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돈도 엄청나게 액수가 크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 회사에 가보면, 사무실도 허름하기 짹이 없다. 그리고 직원들의 눈에 총기가 맹렬하게 불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주인의 솔선수범이라고 한다. 그 회사에서는 종이묶는데 쓰는 클립핀하나를 허름하게 썼다는 주인에게 치도곤을 먹는다고 한다. 100개에 1불하는 그 핀하나 말이다. 일년에 수천만불씩 고아양육과 빈민구제에 쓰는 그 사람이 말이다. 필자가 얼마 전에 언급한 라이흐만형제도 하루에도 수십군데의 자선단체에서 기부청탁이 오는데, 그를 전담하는 부서를 회사에 설치하고, 어떠한 자선단체의 청탁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활태도는 근검절약 그 자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 人格의 有段者라고 할까? 그것이 너무 거창한 타이틀이면, 단순히 錢道의 有段者들이라고 할까? 일본에

도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많다. 긴자의 유태인이라고 불리던 일본 맥도날드의 사장 ‘멘’ 사장도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의 근검절약 정신은 오사카상인의 대표적인 근검절약정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구두쇠 억만장자’라는 책으로 그 사람의 근검절약 逸話들이 소개 된 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구두쇠 행각만 따로 모아 책이 나올만큼 지독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좋은 일에 돈을 꾹꾹 내는 것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최고의 부자라고 하던 윤모씨가 있었는데, 그 분은 아직도 지나가다가 빈병이 있으면, 주어 모으곤 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너무 지독하게 궁티’낸다고 욕을 하였지만, 필자는 이 사람들의 心情을 잘 안다. 다른이에게 후하면서 자신에게 가혹한 그분들, 즉, 錢道의 有段者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 (필자가 어려서 부터 알던 부자집 아들은,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필자같은 친구를 만나면 갑자기 취향이 서민적이 되어서 아주 싼 식당에 가곤하는데, 정말 비교가 되어도 너무 된다. 참고로, 이 부잣집 아들은 요사이 돈도 못 벌고 별 볼일 없이 되었다.) 필자는 사람을 몇 번 만나 보면, 제가 아무리 허풍을 떨거나, 반대로 없는 척하여도,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수입현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神奇한 재주가 있는데, 필자가 비즈нес을 할 때, 상대방의 사무실에 가보면 대강 그 사람의 비즈не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허름한 자기 빌딩에서 허름하고 조그만 사무실에서 나이 많고 육덕있고 믿음직한 아줌마여비서 한분 데려 모셔 놓고 오래된 전화기가 많이 놓여있고, 성능 좋은 컴퓨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 총기 빌랄한 직원이 북적북적하는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반면 자기 빌딩도 아닌 곳에 좋은 오피스를 차려 놓고 비싼 가구에 짧은 치마입은 이쁜 여비서들 와다갔다하면서 직원들도 북적거리지 않는 오피레이션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속은 없으면서 무언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좋은 인상을 维持費를 둘째 가격에 포함시켜 고객에게 페널티를 주면,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파는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은 엄청난 바가지가 아니겠는가? 즉, 장사 잘되는 허름한 곰탕집같은 분위기가 나야지 너무 깨끗하여 파리는 황송하여 오지를 못하여 날릴 파리 조차도 없는 고급호텔 레스토랑같은 비즈нес을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필자도 밴쿠버 다운타운에 사무실을 얻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 필자가 벌리는 사업의 성격상 사무실이 깨끗하길 하여야겠다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사무실을 하나 열자니 거기서 깨지는 비용이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국제적인 회사들이 투자 상담하러 오는데, 더럽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하나 얻긴 얻었는데, 잘한 것인지 모르겠다. 깨끗한 인상도 주지도 못하면서, 비용만 어중간하게 깨지는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 근검절약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손쉬운致富의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사람은 사실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다. 즉, 富를 재산의 액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생활에서 누리는 自由의 程度로 따지면, 년 백만불씩 돈을 벌지만 돈을 퍼써야하기 때문에 혁혁거리며 돈을 더 벌어야되는 사람보다 낸 몇 만불씩 밖에 못 벌더라도 돈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훨씬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다. 즉, 후자가 더 富者인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후자의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쥐게 된다.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취직이 되면, 일주일에 100시간씩이나 되는 고된 일을 하여야하지만 대학 갓졸업한 젊은이의 초봉이 보너스까지 합쳐서 년 40-50만불씩된다. 필자의 동창 하나는 첫해에 보너스까지 2천만불을 받은 사람도 있다. 언뜻 생각에는 그렇게 2-3년 하여 한몫 챙긴뒤 은퇴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않나 싶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일단 거기에 취직이 되면 아파트도 맨하탄의 최고급으로 얻어야되고 자동차도 최고급 스포츠카로 구해야된다. 그러지 않으면 껴주지를 않는 것이다. 물론 안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그렇게 벌어도 2-3년 지나면 모으기는 커녕 모두 빚투성이다.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이흔 서너번 한사람은 대부분이고 도박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일많이 하여 봄버려, 빚쟁이되... 한마디로 폐가망신이다. 거기다가 그 물에서 한 번 놀면, 절대로 소비생활을 줄이지 못 한다. 그러니 빚은 계속 늘고, 계속해서 한몫 잡을 궁리만 한다. 한마디로 년봉을 4-50만불씩 받아도 계속하여 상거지인 것이다. 그렇게 돈을 벌고도 말이다.

자, 안쓰는 사람이 결국은 富者라는 소리는 그만하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린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카나다에서 '안써서 부자되는 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되는 것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북미대륙에서는 우리가 이 동양의 전통미덕을 쉽사리 잊어 먹는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하도 퍼쓰니까.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전역사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퍼쓰는 나라는 없었다. 환율, 실질 국민소득, 한계소비성향.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북미 사람들이 퍼쓰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들어내주는 에너지 소비량을 보자. 미국은 인구가 전세계인구의 20분지1도 채안되지만, 에너지 소비는 전지구 에너지 소비의 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카나다는 그보다 더하다. 즉, 북미는 역사상 최고로 기록적으로 퍼쓰는 곳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람도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퍼쓰니 '분위기 상' '체면 유지상' 나도 저절로 퍼쓰게 된다. 그리고, 사실은 비즈네스하시는 분에게만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소득세가 위

낙 높기 때문에, 일단 비용공제로서 그 세금을 깎아야되는데, 이 세금 덜내는 맛에 여기 저기 돈을 쓰게 되지만, 사실은 그 것이 모두 제살 깎아먹기이다. 필자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역으로 북미에서 구두 쇠작전을 벌리면, 크게 히트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는 사실 너무 낭비하는 자원이 너무 많다.

관련하여,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Tightwad(깍쟁이)라는 잡지가 있다. 이 잡지의 주인은 3만불도 안되는 소득을 가지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농장까지 샀다. 읽어 보면, '그렇게까지 하면서'라고 생각드는 이상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우리야 기껏해야 '꿩먹고 알먹고' 정도로 우리의 근검절약에 대한 의무는 다 했다고 자위하지만, 이 잡지를 읽어보면 '꿩먹고 겨우 알먹었나?' 그럴 지금부터 등지는 캐서 불때고, 꼬리는 잘라서 눈닦고, 국물은 냉면말아 사돈 환갑잔치하고... '식의 생활태도'가 있다. 훨씬 더 많이 벌면서도 자동차 모게지니 무어니 빚을 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분들에게 가서 무릅뚫고 배워야한다. 소비가 미덕인 여기서도 아끼고 사는 방법은 얼마되지 있다. 예를 들어 공짜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시설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림 엽서에나 나오는 바닷가에 앉아있어도 공짜요, 세계적인 설비를 거의 무료에 사용하게 하여주는 공공 수영장에 가면, 자구치 사우나 있는 수영장이 대부분인데, 거기도 주말에 가면 공짜다. 한국에서는 영화에서나 보던 경치 좋은 곳에 들어가서

하이킹을 하는데도 모두 무료이다. 두당 3천원씩 내고 들어가서 복작거리는 인파 속에 도시락까먹던 어린이 대공원이나, 창경원에 비하면, 여기서는 돈안들이고 재미있게 놀려면 얼마인지 놀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거의 무한정 '공짜' 課外指導를 하여준다. 한국이나 미국같으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떼돈을 주거나, 백을 쓰거나 간을 다 빼어주고 고개를 수십차 속이거나하여 겨우 일을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서비스를 이곳 카나다에서는 정부가 공짜로 데주는 것이다. 공짜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가도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하는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 카나다라는 곳이 돈을 안들이고 깍쟁이 짓을 하면서도 얼마인지 잘 살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싶다. 거기다가 퍼쓰는 나라와 퍼쓰는 사람들이 바로 주위에 있으니 돈을 벌기도 좋고 말이다. (관련하여, 필자의 처는 '기독교 부인 절제회'라는 단체에 관련이 있는데, 필자는 우리 북미에 사는 여성분들은 모두 이 회에 가입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禁酒運動으로 시작한 基督教 부인들의 절제 겸약 실천 운동이란다. 필자가 한국서 제일로 존경하는 여귀 옥권사님의 감화를 받아 필자의 처도 이 회에 가입을 하였고, 필자의 처가 뱅쿠버지역의 연락을 맡고 있다. 필자의 처의 연락처는 이미경(261-0957)

어떻게 생각하면, 집을 약간 무리를 해서 장만하는 것 이, 이 強制저축의 의미가 있

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현금에 관한 디시플린이 없어서, 현금을 쥐고 있으면 쓰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래 저래, 여기 저기, 흐지부지 결국 어디간지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안써서 남고, 집값을 라서 남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집값이 어느 정도만 계속하여 꾸준히 상승하여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필자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나 카나다에서는 이 이야기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여야한다. 뒤에 가서 카나다의 부동산 시장을 따로 떠어서 자세히 언급 하겠지만, 상승일변도의 한국 부동산시장과는 달리 카나다에서는 부동산가격은 급격한 등락이 계속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무리하여 집을 사서, 강제저축을 시도하는 資產運用 작전은 약간 무리가 있다. 미국처럼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공제를 하여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집을 크게 장만하면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돈이 많기 마련이다. 재산세 화재보험은 물론이려니와, 전기값 방열비도 비례하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큰 집에 맞게 걸맞는 가구를 채워넣어야하고 거기에 따라 쓰임이도 커진다. 예를 들어 집이 근사하면 식당도 근사할 것이고, 식당이 근사하면 식탁도 근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 근사한 식탁위에 싸구려 콩나물만 얹어놓을 수 있겠는가? 또 좋은 반찬을 해놓았는데, 보

〈아랫면에 계속〉

통 손님을 부를 수 있겠는가? 또, 자동차 서너대 집어넣는 근사한 차고에 차전거만 세워놓을 수 있겠는가? 즉, 카나다에서는 집도 消費財로 취급하여야지 절대로 저축의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하지만, 집은 소비재이기는 하지만 아주 耐久性이 있는 소비재이다. 현금을 진득이 쥐고 있다가 適期適所에 꽉꽉 투자할 능력이 없으면, 아래 저래 돈은 다 없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의미에서 무리하여 집을 사는 것은, 이왕 소비로 돈을 없앨려면, 아주 내구성 있는 소비재를 사야된다. 그러나, 아무리 내구성 소비재라도 그것때문에 돈이 더들어가는 소비재를 사면 안 된다. 즉, 크고 좋은 집을 하나 사서 생활비만 올리지 말고, 집값 틀림없이 오를만한 지역에 작은 집을 두개 사서, 한 집에서는 내가 살고 한집에서는 세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 좌우지간, 카나다에서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다음에 좀 자세하게 논하자.)

그런데, 안쓰는 것은 우선 버는 것이 있어야 안쓰는 것인데, 어떻게 안쓰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하고 의아해 하실 분이 많을 것이다. 안쓰는 것이 무서운 힘을 발하는 것의 비결이 바로 '플로우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전에는 '현금력'이라는 것은 '복리의 힘'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독자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근검절약은 바로 '플로우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힘을 발한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안정된 직장을 주는 것이 더 큰 힘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안정된 직장을 많이 만들어 내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스타가 되는 것이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 한국에서는 청문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야 스타가 되지만, 여기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년 5만불월급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2개 만들어 낸 구멍가게 주인의 사회봉사에 대한 금융평가는 100만불을 한 목에 빙민구제에 낸 사람보다 몇단계 위로 쳐주게 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30만불 巨金(?)을 들고 들어오신 투자이민자들이 이 사회내에서의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알아보고 싶으면, 년 3만불을 안정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즈нес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면된다. 즉, 하루에 80불 정도를 버는 비즈нес 말이다.에게... 틀림없이 주제넘고, 약간은 충격적인 警告인지는 모르지만, 투자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경제적 强者가 절대로 아니란 점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로서야 당분간(?) 다른 사람보다 은행잔고가 좀 높을 지 모르지만, 투자이민자들은 경제적 약자 중에서도 上약자이다. 빠른 시일내에 正의 캐쉬 플로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곧장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것은 이 플로우의 계산법에 의하면 너무도 明若觀火하다. 생각해보면, 30만불이나 50만불이나하는 돈은 참 어중간한 돈이다. 생활비로는 전혀 안쓴다 하더라도, 인벤토리 조금 있는 사업 인수하고, 사람 한둘쓰고, 얼마간 장사 안되면 다 날리는 돈이다.

아에 없으면, "좋다. 나는 막간다. 赤手空拳으로 이 카나다에 왔으니, 죽을 때 묘자리하나 날아 있어도 나는 납는 장사했다." 식으로 맘 푹놓고 달려들면,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기가 아주 쉽다. 아니면, 홍콩 사람들처럼 아예 수백만불 턱 가져다놓고, 마음 푹놓고 필자가 위에서 말한 캐쉬파워로 밀어부치면서 장사를 하면, 그것도 할 만하다. 그런데 한국의 투자이민의 경우는 참 어중간하다. 막가자니 그것은 몸이 괴로워 싫고, 또 그렇다고 돈을 충분히 집어넣고 마음 푹놓고 장사를 하자니 자금이 모자란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초조하여지고 초조하여지면, 당연히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사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리스크를 진다는 말이 성공확률이 그만큼 작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투자이민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푼 가져오지 않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오히려 더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한다. 다른 이민자들은 벌써 어떠한 방법으로 던 이 사회에서 정의 캐쉬플로우를 만들어 낼 줄 아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일부 투자이민자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그저, 당연히 불안해를 하시는 것만 같고, 구체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를 잘 보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생활 소비 수준들이 필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으신 듯 하다. 물론, 복작복작하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아귀다툼하기 싫어서 이곳 카나다로 이민까지 오실 때에

는 약간은 편하게 사실 요량으로 그리하신 것이 이해는 같다. 그렇지만 경제학전공하는 필자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위태 위태하여 보일 수가 없다. 필자는 이미 살고계신 교포나 새로오신 투자 이민자들 모두 조금 더 깍쟁이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후진 금융권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이 플로우식 계산법에 약하다. 당연히 월급날 만 가까와오면 짤짤매는 카나다인들이 우습게 봐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생각만 하여도 흐뭇해진다. 그러나, 이 점하나는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여기는 은행잔고로 게임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캐쉬플로우로 게임을 벌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충격적인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修辭學적 목적에서 드리는 우스개 말씀인데, 필자는 뱅쿠버 시내에 순전한 구걸행 위로서 하루에 100불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뛰어난 곳을 몇군데 알고 있다. (사실,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의 뒷 좋은 구걸 장소도 필자는 아주 잘 알고 있다. 뒷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여간, 선진 금융권내에서는 나쁜 버릇만 없으면, 그리고, 머리 좀 써서 그런 좋은 뒷을 차지하면,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巨金들고온 투자이민자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이다. 즉, 하루에 80불정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산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는 소리이다. 우리는 뉴스의 가십난에 가끔 어디서 거지가 죽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기사를 읽